의료기기/신성장

Sector Issue Brief 2025. 11. 28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 경쟁 보다는 수요 성장에 관심 가질 시점

Check Point

- 급성장하는 스킨부스터 시장
- 공급 확대에 따른 경쟁 우려
- 우상향 하는 수요에 초점

| Analyst **조은애** | goodkid@ls-sec.co.kr

경쟁심화 우려 보다 우상향하는 수요에 관심 가질 시점

▶ 국내 스킨부스터 주요 상장사 스킨부스터 내수 매출은 3Q25 YTD 리쥬란(파마리서치) 1,733억원, 엘라비에리투오(엘앤씨바이오) 20억원(2월 론칭, 직·간접 유통 매출 믹스 감안 필요), 셀르디엠(한스바이오메드) 1억원 미만(9/22 론칭)

▶ 4Q25 예상 내수 매출은 리쥬란 672억원, 엘라비에리투오(엘앤씨바이오) 30~40억원, 셀르디엠(한스바이오메드) 40억원

▶ 2026 예상 내수 매출은 리쥬란 2,405억원, 엘라비에리투오(엘앤씨바이오) 200~250억원, 셀르디엠(한스바이오메드) 200~250억원

▶ 국내 미용의료기기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하는 내수 수요에 인바운드 수요가 더해지면서 성장세가 가팔라지는 중. 국내 대표 미용의료기기 회사의 내수 매출 성장률에서도 알 수 있듯, 노화에 따른 수요 증가, 얼리 안티에이징 수요 확대, 남성의 시장 참여 등으로 2021년~2025E 내수 매출액 CAGR은 파마리서치 +30%, 클래시스 +40%를 기록하며 구조적으로 성장 중. 여기에 2025년부터는 인바운드 피부과 소비금액이 월평균 915억 원(+73% yoy) 더해지면서 내수 시장 성장은 더욱 가속화되는 흐름

▶ 인바운드 미용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인바운드 피부과 관광객의 시술 형태는 단일 시술보다는 스킨부스터가 기본적으로 포함된 콤비네이션 시술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인바운드에 기인한 시장 성장은 모든 콤비네이션 시술의 가장 기본이 되는 스킨부스터 시술(업체)이 가장 크게 수혜를 확보하고 있음. 스킨부스터 cc당 단가 측면에서 봤을 때, 리쥬란은 PN 오리지널리티로 시장 점유율 1위이면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소비자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인바운드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음

▶ 내수시장 경쟁 심화 우려가 있지만, 수요 고성장 구간에서의 시장 참여자(공급자) 확대는 자연스러운 현상. 이에 따른 경쟁 심화는 개별 기업의 광고선전비 증가 요인 정도일 뿐, 매출 성장률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 실제, 파마리서치는 2025년 TV·옥외 광고 등 국내 마케팅을 확대하고, 동시에 글로벌 브랜딩과 해외 진출 가속화에 따른 해외 광고비 지출 증가가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수와 수출 매출의 고성장에 따른 영업레버리지 효과로 GPM·OPM 개선 기조 유지 중

▶ 엘앤씨바이오와 한스바이오메드는 ECM 카테고리 성장을 주도하는 기업들로, 현재는 내수 중심의 성장 국면에 있어 월 매출 증가세의 지속 가능성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시술자 니즈에 부합하는 제품 특성으로 초기 내수 시장 확장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다만, 현재는 동종진피 카테고리의 제도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카테고리에 대한 규제 방향, 의료기기 등급 분류, 원료 관리 기준의 구체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또한, 언제 유의미한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필요한 상황

표1 **주요 스킨부스터 유형별 핵심 비교**

주요 성분	PLLA, PDLLA	PN/PDRN	hADM (ECM)
유형	자극형	재생형	보강형
물질 구분	합성 고분자	정제된 생체 고분자	생체 고분자
작용기전	미세 염증 반응을 통해 섬유아세포를 자극하고 콜라겐 신생을 유도하는 바이오스티뮬레이터	핵산 고분자가 진피 세포의 A2A 수용체를 활성화해 염증을 낮추고, 성장인자 분비 및 섬유아세포의 재생 활동 촉진	콜라겐·엘라스틴 등 진피 구조를 직접 보강하고, 세포가 안착할 수 있는 지지체(Scaffold) 역할을 수행하여 조직 리모델링 유도
핵심 효과	3~6 개월차에 피크가 오는 콜라겐 신생, 볼륨 개선, 장기 유지 효과 등	피부결/탄력/광채/모공 개선, 염증 완화 등	즉각적인 구조 보강, 장기적 조직 재배열, 처짐 개선 등
주요 공급자	갈더마 '스컬트라(2009)' 바임글로벌 '쥬베룩(2017)'	파마리서치 '리쥬란(2014)'	엘앤씨바이오 '엘라비에 리투오(2025.02)' 한스바이오메드 '셀르디엠(2025.09)' 바임 '쥬브아셀(예정)', 바이오비쥬 '셀리비온(예정)'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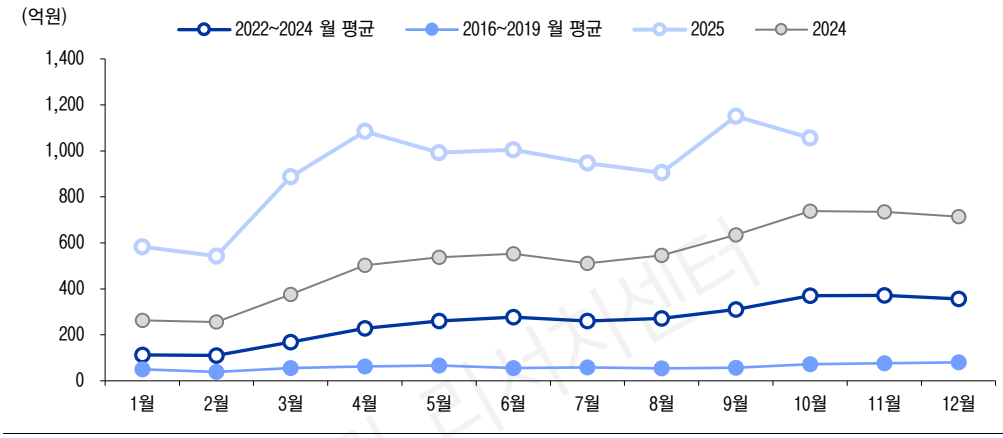
표2 **국내 판매 주요 스킨부스터**

제조사	제품명	주요 성분	허가/출시	국내 매출 추정 (2025E)
멀츠	레디어스	CaHA	2006	-
갈더마	스컬트라	PLLA	2009	-
신클레어	엘란쎄	PCL	2009	-
파마리서치	리쥬란	PN	2014	약 2,000 억원
바임글로벌	쥬베룩	PDLLA	2017	약 500 억원
LG 화학	비타란	PN	2023	-
엘앤씨바이오	엘라비에리투오	동종진피	2025	약 50 억원
한스바이오메드	셀르디엠	동종진피	2025	약 30 억원

자료: 언론보도, LS증권 리서치센터, 주석: 바임글로벌은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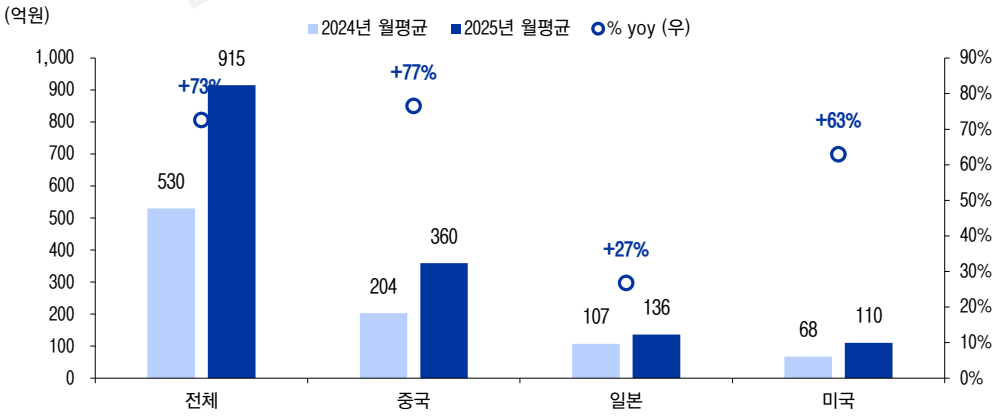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 월별 외국인 인바운드 피부과 소비금액 트렌드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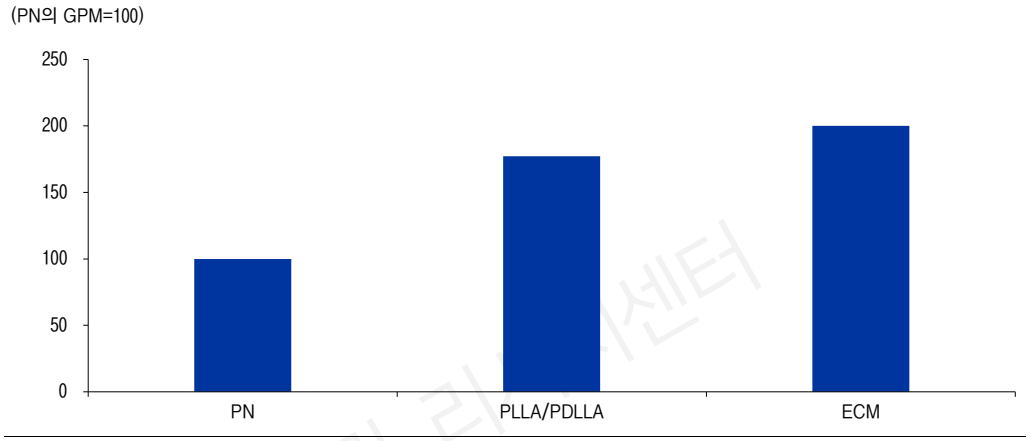
그림2 국가별 외국인 인바운드 피부과 월평균 소비금액 변화



자료: 한국관광데이터랩, LS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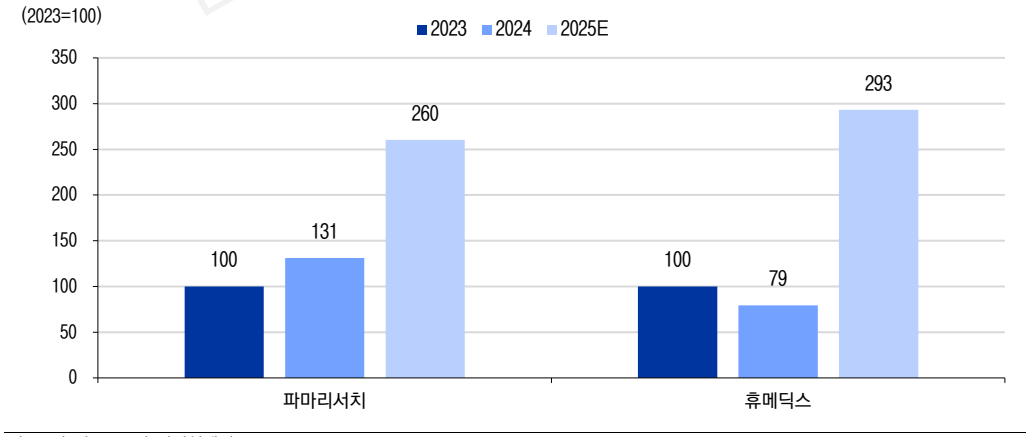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병원에서의 스킨부스터별 GPM 수준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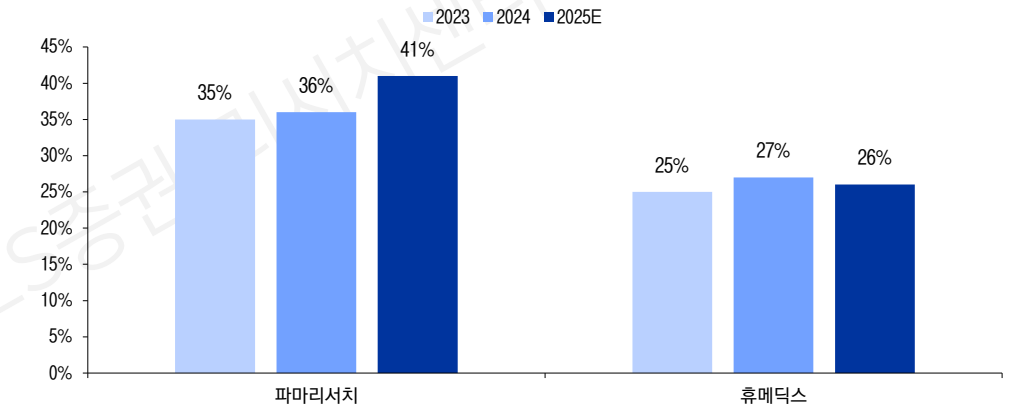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주요 스킨부스터 기업 광고선전비 증가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주요 스킨부스터 기업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



자료: 각 사,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조은애).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

구분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 개월)	투자등급	적용기준 (향후 12 개월)	투자의견 비율	비고
Sector (업종)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Company (기업)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	Buy (매수) Hold (보유) Sell (매도)	+15% 이상 기대 -15% ~ +15% -15% 이하 기대	89.4% 10.6%	2018 년 10 월 25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 적용기준이 기존 ±15%로 변경
		합계		100.0%	투자의견 비율은 2024. 10. 1 ~ 2025. 9. 30 당사 리서치센터의 의견공표 종목들의 맨마지막 공표의견을 기준으로 한 투자등급별 비중임 (최근 1 년간 누적 기준. 분기별 갱신)